



단풍 터널

녹색 바람 길 걸으면 어느새 평안이

내장산 가는 길은 온통 녹색 파도...

정읍에서 내장산으로 가는 길목은 두 갈래다. 내장산 IC를 거쳐 용산호 쪽에서 가거나 정읍시가지에서 내장호를 지나는 길이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이 각각의 풍경과 멋이 있다. 내장산 문화광장의 싱그러움 초록 잔디와 깔끔하게 조성된 단풍 생태공원, 내장산 자락을 배경으로 햇살에 보석처럼 반짝이는 물결이 좋은 이라면 내장호 쪽을 권한다.

용산호 쪽으로 방향을 튼 이라면 한 가운데 다섯 마리의 용을 품고 있는 용산호의 아름다움과 내장산 리조트 & 골프장의 풍광을 즐기고, 최근 정읍의 대표 명소로 떠오른 엘리스테이에서 쾌적한 휴식을 취해도 좋다.

그중 내장호에서 내장산으로 들어간다. 가는 길은 온통 녹색 파도다. 내장호를 둘러싼 산에서 도로변에 나란히 나란히 서 있는 나무들에서도 금강이라도 푸른 물이 쏟아질 듯하다.

내장호는 새벽 물안개가 피어나는 몽환적인 풍경으로도 많은 이가 찾는 곳인데, 이쯤은 무엇보다 햇살 속에 빛나는 물결과 둘러싼 녹음의 조화가 아름답다.

늘어진 나무들을 끼고 우뚝구불 도로를 달리며 꽃들 떠난 자리를 충실하게 채운 잎들을 본다. 나무든 사람이든 떠나고 돌아오고 또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숙명인가. 하는 어쭙잖은 생각도 잠시, 이내 푸르고 화사한 세상으로 돌아와 5월의 아름다움을 만끽한다.



▲푸름 속 신채의 즐거움... 내장산단풍생태공원
내장호 끝에 내장산단풍생태공원이 있다. 내장산국립공원과 정읍시가 함께 만든 공원이자 넓이는 6만㎡로 내장호 체험학습관과 조류관, 찻대, 멸종위기 식물원, 생태습지, 세계단풍원, 단풍분재원, 체육시설 등이 들어서 있다. 잔디광장 경관이 좋고 주차장도 넓다. 깔끔하고 쾌적한데다 주변과 잘 어우러진 산책길이 있어 걸기의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다. 푸르고 푸른 청단풍 붉은 빛이 아름다운 공작단풍 등 여러 단풍나무 제각각의 아름다움도 만날 수 있다.



내장산단풍생태공원

▲날개 돌아 승천한 정자의 우아한 아름다움... 우화정

단풍생태공원을 지나면 크지 않은 계곡의 조곤 조곤한 물소리가 반긴다. 계곡길을 쭉쭉 따라 걸거나 차로 달리다 보면 어느새 내장산국립공원 경내로 들어가는 매표소다. 지난 4일부터 조계종과 문화재청이 국가지정문화재를 포함한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에 집중하던 문화재 관람료를 폐지하기로 합의 따라 지금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우화정과 신선제

매표소에서 내장사에 이르는 풍경과 분위기는 가히 절경이다. 무수한 초록잎들이 장막을 드리운 경내 도로나 왼쪽으로 계곡을 둔 산책길을 걷다 보면 시름이 절로 사그라든다. 내장사까지는 걸어서 넉넉하게 40분, 말지는 산뜻한 피아노 음(音)처럼 가볍게 흐르는 물결기도 반갑고 나뭇잎 사이로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다.

내장사에 이르기 전 만나는 우화정(羽化亭)과 신선제(神仙臺)의 조화도 눈길을 끈다. 정자에 날개가 돌아 승천했다는 전설을 품고 있는, 전통 한옥의 우화정(羽化亭)과 신선제(神仙臺)의 하얀 물보라가 어우러진 정경을 상상해 보라.

▲푸름의 절정, 오색연등을 품다... 단풍터널
우화정을 지나 단풍터널로 향한다. 단풍나무마다 꽃이 피었다. 푸른 잎 사이로 나뭇가 내려앉



용굴 내부

내장산단풍생태공원 주변 산책길서 걷기의 즐거움 만끽

내장사 이르기 전 만나는 우화정-신선제의 조화 '눈길'

우화정 지나 단풍터널서 아름다운 초록 단풍 구경도



천연기념물 단풍나무

은 듯 살포시 피어난 붉은 자주색 꽃. 가만히, 오래도록 바라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다. 단풍나무 꽃말은 사랑과 은둔.

속세에 108 번뇌가 있다던가. 그래서 그 번뇌를 끊고 성장하기 위해서 부처님 앞에 108번 절을 한다자... 내장사 입구 일주문에서 내장사로 가는 길에 108그루의 단풍나무가 이루는 단풍터널로 들어가려니 꽃말도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터널을 가만히만 걷다 보면 초록단풍이 화려한 가을 단풍보다 낫다는 감탄이 어색하지 않다.

특히나 부처님 오신 날(5월 27일)을 앞두고 나무마다 달아놓은 알록달록 오색연등이 푸른 색과 어우러지니 눈은 즐겁고 발걸음이 가볍다. 세상의 걱정과 시름을 나무와 등 하나하나에 매달아 두고 마음의 짐을 벗어 보자. 내장산 너른 풀자연 속 자유로운 영혼이 된다.

▲자연에 역사를 더하다... 조선왕조실록길
내장사에서 용굴에 이르는 길은 역사의 숨결을 따라 걷는 숲길 산책이다. 바로 '조선왕조실록길'. 내장사를 앞에 두고 왼쪽으로 접어든다.

조선왕조실록은 국보 제51호이자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 내장산은 태조에서 명종에서 이르는, 조선 전기 200년을 담은 실록을 지켜낸 곳이다. 임진왜란(1592~1598) 당시 4대 사고 중 서 울 춘추관과 충주, 성주 3곳의 실록이 불타버리고 전주사고(전주 경기전)마저 소실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정읍의 선비 손흥록과 인의를 비롯한 희묵대사 등 수많은 정읍사람들이 목숨 걸고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국보 제317호)을 내장산까지 옮겨와 1년여 동안 낮 밤으로 지켜냈다.

금선계곡 위, 길이 8m 높이 2~2.5m의 동굴인 용굴이 조선왕조실록을 보존했던 터다. 인근에 흔적으로 남아 있는 비래암과 은봉암 역시 실록을 보관했던 사찰 터들이다.

실록길을 따라 300m 쯤 가면 길에서 약 30m 정도 떨어진 산비탈 아래 2021년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63호로 지정된, 내장산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단풍나무가 있다. /정읍=김태환 기자